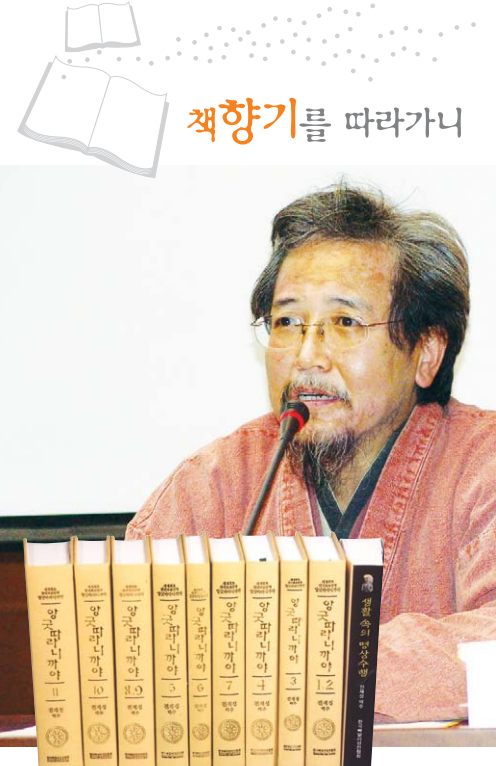




# 부처님의 原音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 '앙굿따라니까야' 완간 봉정식 및 기념세미나



최초 <앙굿따라니까야>를 완역·완간한 전재성 대표와 원역본의 모습(왼쪽). 완간을 기념해 '불교와 자아의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 제대로 알리고 싶어 초기경전 번역에 몰두한 삶 어려움 이겨내고 니까야 완역본들 쌓여가고 있어

"빨리어 경전을 1년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1권씩 번역해나..."

한 학자의 노력이 또 한 번 결실을 맺었다. 한국불교의 성전학회 전재성 대표가 <앙굿따라니까야>와 <맛따마니까야> 전집을 완역한 데 이어 <앙굿따라니까야> 전집 12권(선집 1권 포함, 출판물로는 10권을 펴낸 것이다.

이 노력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앙굿따라니까야 봉정식 및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 대표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빨리어 경전 한글화에 고집스레 매달려온 학자에게 어떻게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앙굿따라'는 '점증하는 고리'를, '니까야'는 '경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 즉 주자에 따라 각권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열한 경전이라 보면 된다. 예를 들면 3권은 '어리석은 이도 세 가지 원리로 알려지고...후략'로, 4권은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후략'는 식으로 시작, 각 숫자배열에 맞는 경전을 모아 엮었다. 그래서 전 대표의 각 권마다 '모아엮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역(漢譯)경전으로는 <증일야함경>에 해당한다.

전 대표가 완역한 <앙굿따라니까야>는 세계 최초로 생략된 부분까지 복원해낸 니까야다. 전 대표가 빠알리성전 협회의 교역위원과 미얀마6차결집본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현전하는 3573경을 8497경으로 복원·번역했다. 주석만 해도 4834개에 이른다.

방대한 양이지만 <앙굿따라니까야>의 내용은 일상적 가르침이 많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심리적·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재가신도의 관심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된 짧은 경전들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전 대표가 이번에 완역한 <앙굿따라니까야>를 비롯, 니까야의 한글화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일 유학시절 꼭 빠진 니까야의 세계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쉽게 읽힐 수 있는 경

전'에 대한 열망이다.

"니까야는 원전(原典)입니다.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전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 아학에 나가 사람들에게 불교 경전을 가르치려니 한문투성이라 너무 어렵더군요.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 한문의 글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원전을 연구하게 됐지요."

<앙굿따라니까야>를 완간하기까지 전 대표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은 불교계에서도 점차 '니까야'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읽기 모임도 생겨나는 추세지만 처음 시작 때만 해도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현재도 전 대표의 연구소는 그가 기거하고 있는 자택이다. 그러다보니 전문 교정인력이 없어 교열교정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성들여 번역한 책에 잘못 끼여 들어간 내용이나 오타가 보이면 전 대표는 가슴이 쓰리다.

번역자제도 힘든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기 쉽지 않아 전 대표는 독일어와 영어를 통해 빨리어를 배웠다. 게다가 빨리어는 고어(古語)라 문법체계가 현대어와 다른데다 완벽하지 못해 방어를까지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연구자가 달라지면 쓰는 용어의 체계가 달라져 공동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전 대표에게는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한글 <앙굿따라니까야>를 발간하며 전 대표는 '불교와 자아의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불교계에 질문을 던졌다. 이는 전 대표가 니까야들을 정리하면서 현재 불교계에서 '참나' '진아' '마음' 등의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음에 전착해, '자아'라는 개념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바라보고자 마련한 세미나였다.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과연 '참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사회로 전 자통신연구원 박문호 박사, 서울산업대 정영근 교수, 서울대 김규원 교수, 한림장신병원 최훈동 원장을 비롯해 전자학·생물학·정신의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 각자의 분야에서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진행 후 발표자들은 "자아"를 수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자아의 개념들이 사고를 경직되게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용어에 갇혀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앙굿따라니까야>의 완간 의미는 위대한 번역작업, 원전 그대로의 한글화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날 세미나에서 회자된 용어의 경직과 문제외도 연관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대승경전에는 해법을 들어왔다면 이제 초기경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실생활은 어떻게 연결 수 있는지도.

그러나 <앙굿따라니까야> 완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타의 가르침을 최대한 그대로 듣고 그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배움을 구하고 싶어야 한다는 의식일 것이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 빨리어란?

고대 인도의 언어. 원시불교경전 및 스리랑카·미얀마·타이 등 남방상좌부불교(테라와)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기불교의 성전어(聖典語)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언어다. 본래는 '성전본문'을 뜻하는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성전본문의 언어'라는 뜻으로 바뀌 쓰게 됐다. 고대 인도의 교양어였던 산스크리트어에 비해 음운론적·형태론적으로 단순화된 경향을 나타내며, 다종다양한 요소가 서로 뒤섞여 그 기본이 된 언어를 특정 짓기가 힘들다. B.C. 2세기 무렵에는 북인도에서 광범위하게 통용 언어로 쓰인 것으로 여겨지며 5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로 퍼져 불경을 기록하는 문장어가 돼, 불교교리·불교문학에 관한 막대한 문헌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문자체계가 없어서 국제적으로 빨리어경전은 로마자화해서 표기하고 있다.

###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육조단경  
한국선문화연구원(정성본)2003년  
김상규 법수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 '참회의 삶' 가르쳐 준 위대한 스승

불법에 귀의한지는 오래 됐어도 아직 배움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절에 가는 날이면 사시예불에 동참, 많은 신도님들과 더불어 묵묵히 <천수경>을 읽기도 하고 절도 한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서 좌선도 빼 놓지 않는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에 임하고 있는데, <육조단경>을 배우면서 해능의 설법을 통해 선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호감이 생겼고, 내용 중에는 특히 무상계(無相戒) 수계설법(授戒說法)의 무상참회(無相懺悔)에 감명을 받았다.



### 좌선과 틈틈이 불법교리 빼놓지 않아 선불교 사상과 실천체계 제시에 호감

참회(懺悔)는 매우 중요한 불교의 수행의식 중의 하나이고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수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다룬 종교가 그 종교의 절대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불교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중시하기에 부처님께서도 대군(大軍)을 다스리는 장수(將帥)보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더욱 수행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행이란 '스스로를 참회하고 그 참회의 바탕 위에서 더 나은 삶을 다짐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식아, 앞생각(前念)과 뒷생각(後念)과 현재의 생각(今念)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들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惡行)을 단번에 끊어 자기 성품에서 없애면 이것이 바로 참회이고,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몰들지 않아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嬌心)을 없애도록 하면서 영원히 끊으면 자성참회(自性懺悔)가 될 것이

다"고 하셨다. 참다운 신앙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붓다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구나 한 두 가지의 허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허물을 숨기고 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회를 함은 다함이 없지만, 그 죄의식에 붙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바로 이 구절이 대승불교의 진리적 참회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천태지자 대사는 참회의

두 가지로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참(事懺)은 예배, 송경 등 신(身)·구(口)·의(意)의 행위로 나타내는 참회로 수사분별참회(隨事分別懺悔)라 하고, 이참(理懺)은 실상의 이(理)를 보고 죄를 멸하는 참회로 관찰실상참회(觀察實相懺悔)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회란 사참을 말한다. 두 가지의 참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이참에는 사참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참에는 이참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명 선사님은 "성불의 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참을 행해야 하니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 귀명(歸命)하고 비 오듯 슬피 울며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치 연꽃이 햇빛을 받아 활짝 피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육조단경>을 통해 참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이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육조단경>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SMD LED 전구 (국산정품)

**불제 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 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할라멘트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길이대  
연등, 영기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